

색채 프리즘에 비친 인간과 세계 이야기

책으로 읽는 색 이야기

우리는 날마다 색채의 향연 속에서 살아간다. 태고 역사의 기원부터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에 이르기까지 색은 우리 삶의 필요조건이며, 적극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색채 연구도 점점 세분화·다각화돼왔다. 색을 주제로 한 책들에는 색채프리즘에 비친 인간과 세계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색과 인간의 관계 밝히는 책들

만리오 브루사틴의 《색채 그 화려한 역사》(정진국, 까치)는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논의된 색의 이론과 실재를 아우르고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색채 이론은 두 개의 축을 이룬다. 색채를 지각하는 주체의 주관성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하는 피테가 한축을 맡고, 그 대척점에 빛의 분할을 통해 색채와 관련된 지각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뉴턴이 있다. 이 책은 기존에 발표된 저작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금까지 미발굴됐던 수많은 고전 문헌들을 섭렵하고 있다.

피테의 색채이론을 계승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색채를 대상의 내면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내적 본질로 이해한다. 슈타이너는 《색채의 본질》(양역관, 물병자리)에서 “물리학이 색채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색채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끊임없이 유통하는 생명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은이는 현상으로서의 물질계와 영상으로서의 영계간의 거리관계를 도식화했는데 그것이 바로 ‘색채 원근법’이라고 설명한다.

마가레테 브룬스의 《색의 수수께끼》(조정욱, 세종연구원)는 고대 신화와 철학, 심리학과 광학이론에 얽힌 색의 수수께끼를 여덟 가지 색을 중심으로 풀었다. 지은이는 피테가 물리학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범했음에도 피테주의자의 인간적 ‘주관성’과 뉴턴주의자의 ‘객관적 진리’ 간의 논쟁이 현대 색채연구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한다. 파버 비렌의 《색채의 영향》(김진한, 시공사)은 색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미있는 가설을 세워 관찰한 기록들을 보여준다. 지은이는 현대뿐 아니라 고대사회에서 색채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색채에 대한 생리적·시각적·정서적·미적·정신적 반응들을 조사했다. 그는 색채치료에도 관심을 보이는데, 특히 이 부분은 현대인의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색의 실용성에 주목한 책들도 눈에 띄어

색채치료는 스에나가 타미오의 《색채 심리》(박필임, 예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은이는 피테를 “2백년 전에 ‘색채 심리’에 대해 날카로운 고찰을 했던 선구자”라고 평가했는데, 피테의 대표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시도된 ‘색채 연출’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또 피카소의 《게르니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선들러 리스트》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색채 심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도 이 책의 강점이다.

현대에 이르면 색채에 대한 관심이 건축·디자인·마케팅·미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된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가능케 한 염료다. 사이먼 가필드의 《모브》(공경희, 웅진닷컴)는 천연염료를 대체한 ‘모브’를 발명함으로써 대규모의 화학염료 생산을 가능케 한 윌리엄 퍼킨의 생애와 화학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이재선의 《한국의 현대 염색》(미술문화)과 류 숙의 《황톳물 들이는 여자》(평단문화사)는 각각 한국 염색 미술에 대한 대략적 흐름을 짚고, 자연의 빛깔을 담아내는 염색쟁이의 삶 속에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새겨넣었다.

전통색채에 대한 관심은 정종미의 《우리 그림의 색과 칠》(학고재)과 하용득의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명지출판사)로도 이어진다. 《우리 그림의 색과 칠》은 전통 동양화의 각종 재료와 기법을 집대성했고,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는 백의민족과 무채색, 정색·간색·잡색의 전통색 등을 음양 오행의 사상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근대 건축과 색채의 관계를 고찰한 《르 코르뷔지에가 선택한 최초의 색채들》(정진국, 공간사), 풍수사상에 색채론을 접목시킨 《컬러로 보는 생활풍수와 인테리어》(린운 외, 흥성정, 동도원), 색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 《파워 오브 컬러》(모턴 위커, 김은경, 교보문고) 등이 있다. —박옥순 기자